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K-뮤지컬 로드쇼 개최 현장 리서치)

2018.11.7.(수)

1 출장 개요

□ 목 적

○ 공공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유통 구조 구축을 통해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K-뮤지컬 로드쇼의 개최 현장 리서치

* 우리 기관 창작뮤지컬 유통 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개최

○ 2019년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과 K-뮤지컬 로드쇼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9월 대만(해외공동제작 지원 작품 상연) 방문 후 K-뮤지컬 로드쇼 참석, 이를 통해 현재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사업의 실적과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의 개선안 모색

□ 일반사항

○ 출장 기간 : 10월 9일(화)~10월 12일(금) / 3박 4일

○ 출장 장소 : 중국

○ 출장 인원 : 차민태 공연지원부장, 김○○ 사원(창작뮤지컬 해외유통사업 담당)

○ 출장 내용

1) 한국 창작뮤지컬 쇼케이스 참석

2) 기자간담회 참석

3) 뮤지컬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킹 참석 및 현장 의견 수렴

4) 쇼케이스 참여 단체 주축 비즈니스 매칭 참석

5) 한-중 뮤지컬 포럼 참석

6) 상하이 주요 극장 방문 및 업무 협의

□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0.09.(화)	10:45~11:45	- 출국(인천-상하이)	인천국제공항 →푸동국제공항	OZ 363
	14:00~16:00	- 숙소 체크인 및 점심식사	Campanile Hotel	
	18:00~18:30	- 기자간담회 ·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상하이문화광장 주최사 · 6개 단체 대표 작품 소개	상하이문화광장 귀빈실	사회자 김종현
	19:30~22:30	- 개막식 및 창작뮤지컬 쇼케이스Ⅰ · 오프닝 영상(19:30~19:33) · 환영사(서동욱,페이위엔홍) (19:33~19:37) · 목 짧은 기린 지피(19:37~20:06) · 인터뷰(20:06~20:36) · 무한동력(20:36~21:04) · 팬레터(21:04~21:34) · 식구를 찾아서(21:34~22:02) · 신과함께_저승편(22:02~22:30)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19:00 하우스 오픈
	22:30~23:00	- 네트워킹 파티 · 10일 비즈니스 매칭 사전등록	상하이문화광장 로비	
10.10.(수)	10:00~14:00	- 비즈니스 매칭 · 사전등록 리스트	상하이문화광장 로비	
	15:00~17:00	- 한-중 뮤지컬 포럼 · 한국 뮤지컬 시장 현황 분석(발제) · 중국 뮤지컬 시장 현황 분석(좌담회)	상하이문화광장 로비	
	19:30~20:45	- 창작뮤지컬 쇼케이스Ⅱ · 목 짧은 기린 지피(19:30~19:55) · 식구를 찾아서(19:55~20:20) · 신과함께_저승편(20:20~20:45)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19:00 하우스 오픈
10.11.(목)	10:00~12:00	- K뮤지컬-로드쇼 참석단체 미팅 및 사업 개선사항 의견 수렴 · 라이브(주) 강병원 대표, 박서연 이사	숙소 내 로비	
	14:00~15:00	- 상하이 상극장 담당자 미팅 · 해소문화 왕해소 대표 동행, 통역 지원 · Yoanna Li 상극장 e커머스부 매니저 미팅, 한국뮤지컬 상연 현황 및 극장 운영 방향 공유	상하이 상극장	
	15:30~16:30	- 상하이 대극원 담당자 미팅 · 해소문화 왕해소 대표 동행, 통역 지원 · Gong Yingchen 대극원 서비스담당 미팅, 극장 시설 소개 및 뮤지컬 상연 현황 공유	상하이 대극원	
	17:00~18:30	- 상하이 문화광장 담당자 미팅 · 해소문화 왕해소 대표 동행, 통역 지원 · Richard Fei 상하이 문화광장 부총경리 미팅, 중국(상하이)내 뮤지컬 현황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상하이문화광장 부총경리실	19:00 하우스 오픈
10.12.(금)	10:00~12:00	- 행사 결과 및 창작뮤지컬 해외유통 사업 개선 내부 회의	숙소 내 로비	
	16:20~19:20	- 입국(상하이-인천)	푸동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OZ 366

□ 출장경비 집행내역

예산과목	내 용	집행내역(원)	
		계 획	결 과
일반수용비	· 인사교류 기념품 구입비	200,000	0
	· 데이터 로밍비	88,000	66,000
	· 비자발급비용	290,000	220,000
	· 국내이동경비	96,400	0
	· 여행자보험료	100,000	46,720
국외여비	· 항공료	1,265,600	1,287,800*
	· 일비	187,992	187,992
	· 숙박비	563,976	540,974
	· 식비	271,917	271,917
업무추진비	· 현지 부대경비	200,000	0
계		**3,263,885**	**2,621,403**

* 출장 명령 상신 시 여행사에서 항공료 내 부가세 누락하여 견적 발급, 이후 부가세 적용된 금액 재청구

2 주요 경과

□ K-뮤지컬로드쇼 주요 프로그램

ㅇ 기자간담회

- 일시 : 10. 9.(화) 18:00~18:30
- 장소 : 상하이문화광장 귀빈실
- 참석자 : 주최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상하이문화광장), 쇼케이스 참가 6개 단체 대표, 현지 매체, 한국특파원
- 주요내용 : K-뮤지컬 로드쇼 행사 및 작품소개, 질의 응답

ㅇ 개막식 및 창작뮤지컬 쇼케이스

- 일시 : (1일차) 10. 9.(화) 19:30~22:00 / (2일차) 10.10.(수) 19:30~20:45
- 장소 :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 관람객수 : 약 1,893명(1일차 1,109명, 2일차 784명)
- 쇼케이스 참가작 : 총 6편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0.09.(화)	19:30~19:33	오프닝 영상	순도얼 사회
	19:33~19:37	환영사	서동욱(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 페이위엔홍(상하이문화광장 부총경리)
	19:37~19:55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	
	20:06~20:36	<인터뷰> 공연	
	20:36~21:04	<무한동력> 공연	
	21:04~21:34	<팬레터> 공연	
	21:34~22:02	<식구를 찾아서> 공연	
	22:02~22:30	<신과함께_저승편> 공연	
10.10.(수)	19:30~19:55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	사회자 없이 진행
	19:55~20:20	<식구를 찾아서> 공연	
	20:20~20:45	<신과함께_저승편> 공연	

ㅇ 비즈니스 매칭

- 일시 : 10.10.(수) 10:00~14:00
- 장소 :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로비

- 주요내용 : 쇼케이스 참여단체 개별 홍보 및 해외 관계자 1:1 미팅
- 운영방식 : 사전접수 형식으로 매칭 프로그램 운영
- 매칭실적 : 약 21건(6개 단체 각 3~4명 매칭)

시간	작품명	중국 회사명
10:00~10:30	<인터뷰>	HE HE Culture media Co.,LTD
	<팬레터>	사해일가
10:30~11:00	<인터뷰>	사해일가
	<신과함께_저승편>	HE HE Culture media Co.,LTD
11:00~11:30	<무한동력>	사해일가
	<인터뷰>	상하이문화광장
	<식구를 찾아서>	칠막인생
11:30~12:00	<목 짧은 기린 지피>	사해일가
	<무한동력>	상하이문화광장
	<신과함께_저승편>	칠막인생
12:00~12:30	<인터뷰>	칠막인생
	<식구를 찾아서>	사해일가
	<신과함께_저승편>	사해일가
12:30~13:00	<팬레터>	칠막인생
	<식구를 찾아서>	상하이매경문화전파유한공사
13:00~13:30	<인터뷰>	SMG Live
	<팬레터>	상하이매경문화전파유한공사
	<식구를 찾아서>	남소림영시
13:30~14:00	<무한동력>	남소림영시
	<인터뷰>	상하이매경문화전파유한공사
	<팬레터>	베이징 다마이문화전파유한공사
	<식구를 찾아서>	신역

ㅇ 한-중 뮤지컬 포럼

- 일시 : 10.10.(수) 15:00~17:30
- 장소 :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로비
- 사회자 : 김준희(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
- 참석자 : 총 75명(한국관계자 20명, 중국 관계자 55명)
- 주제 : 한-중 뮤지컬 시장 비교 분석

시간	구분	내용
15:00~15:05	참석자 소개	- 한-중 포럼 참여자 소개
15:05~15:40	한국 발제	- 이종규 인터파크 공연음악사업본부장 - 한국 공연산업 현황 및 관객특성 분석
15:40~16:40	패널 질의응답	- (중국) 페이위엔홍 상해문화광장 부총재 :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 요인, 중국 시장의 발전 가능성 및 방향

		- (중국) 상해희극학원 장레이 교수 : 서울의 총 극장 수 및 대극장 수, 한국 티켓 가격 정책과 서울시민 소득 수준 - (중국) 해소문화 왕해소 대표 : 한국 내 창작뮤지컬 시장 전망, 한국 공연 시장의 증감세에 대한 예측
16:40~17:00	플로어 질의응답	- 관객1 : 중국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의 관객동원수와 객단가 - 관객2 : 중국 뮤지컬 시장의 객석점유율과 관람층 연령, 성별, 직업
17:00~17:10	마무리 및 사진 촬영	- 포럼 마무리 및 사진 촬영

ㅇ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무대 셋업</td><td>로비 홍보부스</td></tr>
<tr><td> </td><td> </td></tr>
<tr><td>관객 입장</td><td>홍보물</td></tr>
<tr><td> </td><td> </td></tr>
<tr><td>가로등 배너</td><td>한-중 뮤지컬 시장 비교와 분석 포럼</td></tr>
</table>

<table>
<tr><td>
</td><td> </td></tr>
<tr><td>전문가 네트워킹 파티</td><td>비즈니스 매칭</td></tr>
<tr><td> </td><td> </td></tr>
<tr><td>목 짧은 기린 지피</td><td>인터뷰</td></tr>
<tr><td> </td><td> </td></tr>
<tr><td>무한동력</td><td>팬레터</td></tr>
<tr><td> </td><td>
</td></tr>
<tr><td>식구를 찾아서</td><td>신과함께 : 저승편</td></tr>
</table>

□ 상하이 시내 주요극장 방문 및 담당자 미팅

ㅇ (극장 ①) 상하이 상극장

- 극장 규모 : 중극장(720석)
- 미팅 대상 : Yoanna Li 상극장 e커머스부 매니저
- 극장 특이사항
  - 10월 중 국내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상연 예정
  - 민간운영(연출가 출신의 대표), 대규모 쇼핑몰 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 좋음
  - 주로 연극 위주의 공연 상연. 뮤지컬은 많지 않지만, 향후 한국 뮤지컬 상연 기회 더욱 마련할 예정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 뮤지컬 진출을 위한 중국 내 시설 확보 가능성

    → 국내 정부가 투자하여 상하이 내 극장 설립은 불가하나, 일정기간 임대는 가능. 그러나 비용이 상당히 비싸며, 운영 및 위기관리가 만만치 않음
  - 향후 한국 뮤지컬 상연 계획 및 대관 기준

    → 뮤지컬 장르의 대관은 연극에 비해 많지 않지만, 한국의 좋은 작품들은 10월 중 상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품성'** 있는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공연할 예정

ㅇ (극장 ②) 상하이 대극원

- 극장 규모 : 대극장(1,800석), 중극장(550석)
- 미팅 대상 : Gong Yingchen 대극원 서비스부 부장
- 극장 특이사항
  - 대극장, 중극장 각각 1년에 200회 이상 공연을 하며, 주로 프로덕션의 운영 능력이나 작품성을 고려하여 선정함(2019년 대관 완료)
  - 국가가 운영하여 상업성보단 공공성을 띤 공연을 선호
  - 9월 한중 공동제작 뮤지컬 <쉼 없는 애수> 상연, 11월 뮤지컬 <랭보>(2018 해외공동제작지원 선정작) 상연 예정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 뮤지컬에 대한 이미지 구축 필요성

  →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해 아직은 중국 내 인지도가 부족하며, 홍보전략이 미흡함. 직접 진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더욱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

ㅇ (극장 ③) 상하이 문화광장

- 극장 규모 : 대극장(1,949석)
- 미팅 대상 : Richard Fei 상하이 문화광장 부총경리(K-뮤지컬 로드쇼 협력 담당 및 한-중 뮤지컬 포럼 중국측 발제자)
- 극장 특이사항

  · 2018년 K-뮤지컬로드쇼 행사 진행 극장

  · 시장성 보단 다양성에 집중하여 상연 작품 선정

- 주요 논의 내용

  · 중국 내 뮤지컬 시장 현황

  → 한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뮤지컬 장르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음. 또한 한국만큼 뮤지컬 시장이 아직까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라이선스 공연 위주. 향후 중국 창작뮤지컬 제작을 위해 단순 쇼케이스 방식 이외에 **한국과 여러 방식의 협업이 절대적 필요**

  · K-뮤지컬로드쇼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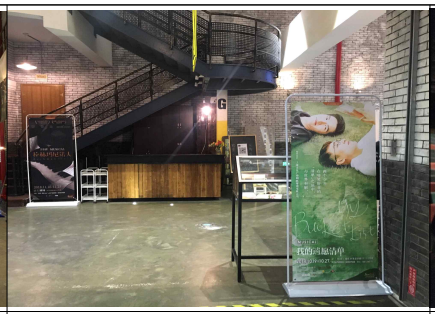
  →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전 준비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발생, 미리 협의가 되지 않은 긴급한 요청사항의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스태프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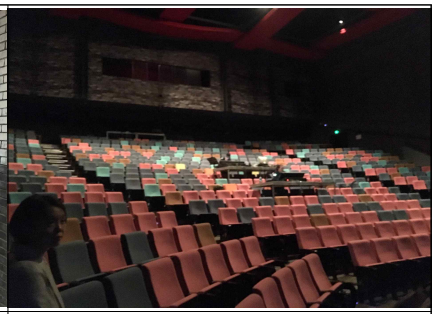
  · 향후 한국 뮤지컬어워즈 등 국내 공식행사를 통해 중국 등 해외 공연 및 극장 관계자를 초청하고, 이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다각화된 교류**를 이뤄낼 것

ㅇ 관련 사진

상하이 상극장(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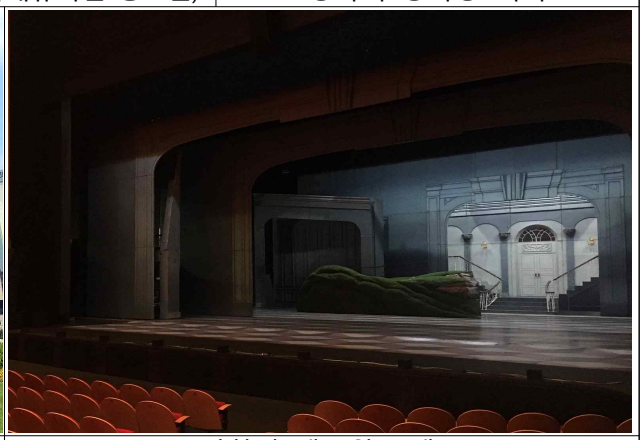


상하이 상극장(국내뮤지컬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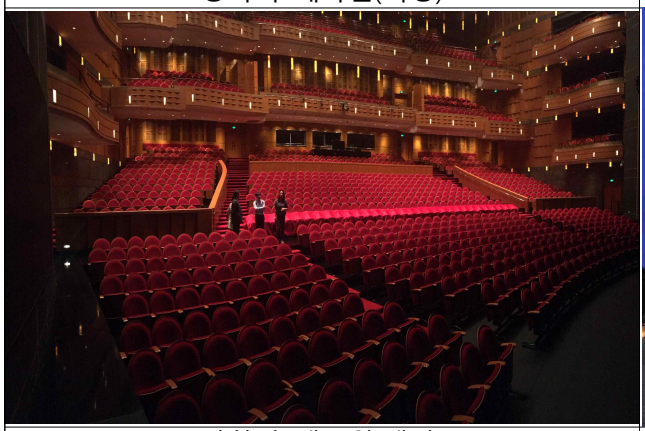


상하이 상극장 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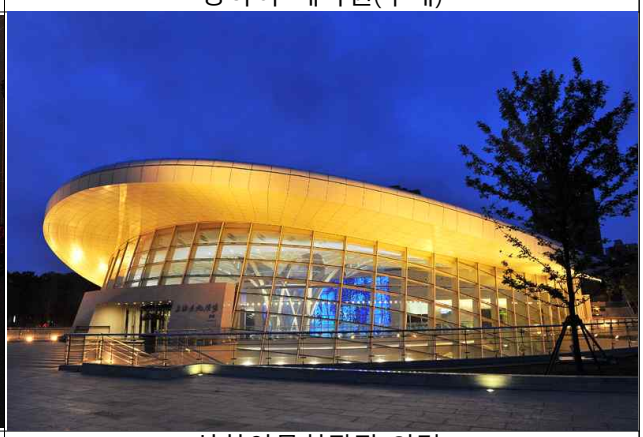
상하이 대극원(외경)



상하이 대극원(무대)



상하이 대극원(객석)



상하이문화광장(외경)

상하이문화광장(극장)

상하이 문화광장 부총경리 미팅

3 시 사 점

□ K뮤지컬 한한령 완화 및 교류 기회 마련

ㅇ 지난해 한한령 여파로 홍콩에서 개최된 K-뮤지컬로드쇼의 상하이 개최를 통해 한-중 뮤지컬 교류 기회 증진

ㅇ 극장 vip 회원 대상 사전 홍보를 통해 총 **1,893명 참석**(2017년 600여명 참석 대비 **약 216% 증가**)

ㅇ 쇼케이스 종료 후 사전 접수를 통한 비즈니스 매칭 진행. 이를 통해 현재까지 작품별 라이선스 논의 활발히 진행

ㅇ 상하이 문화광장 부총경리 및 상하이 주요 극장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 확인

□ K-뮤지컬 로드쇼 한계점 및 개선사항

ㅇ 동일한 예산 불구, 전년대비 단체 지원금 규모 축소

- 2017년 6개 단체, 131백만원 지원 → 2018년 5개 단체, 89.9백만원 지원

ㅇ 주최(예술경영지원센터)측 행사 운영 및 준비 관련 전반적인 미흡

- 전문 통역사가 아닌, 행사에 참여한 외부 직원을 통해 행사 전체 통역 진행
- 행사 직전 한-중 뮤지컬 포럼 발제자 섭외, 발제문 등 준비 미흡
- 1일차에 모든 작품 쇼케이스 후 2일차에 일부 작품만 중복된 쇼케이스 진행
- 극장 측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기자간담회 직전 장소 변경, 네트워크 파티 당일 취소 등

ㅇ 작품 판권 위주의 일방적인 교류 행사가 아닌, **한-중 상호간 다양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제 뮤지컬 교류 행사 기획 필요

→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내 해외 뮤지컬 관계자-국내 뮤지컬 단체 간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순서 마련 계획

→ **2019년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사업** 개선 시 해당 내용 반영, 해외공동제작 및 2019 K-뮤지컬 로드쇼 추진 시 단순 재원 지원이 아닌, **해외 진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국가 차원의 교류 기회 마련**

붙임 1 <2018 K-뮤지컬 로드쇼> 협력 단체

1. 상하이문화광장

2011년도 개관한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국가 소유의 공연장이며, 현재 상하이 자동차 기업의 네이밍 후원을 받고 있음. 현대 공연예술, 미술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선보이며 상하이의 문화레저사업을 선도하고 있음. 주로 브로드웨이, 웨스엔드 라이선스 뮤지컬을 공연하지만, 최근에는 <마이 버킷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 한국 창작뮤지컬 라이선스 공연을 진행하기도 함. 매년 중국 창작뮤지컬 쇼케이스 행사와 함께 뮤지컬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2. 주상하이한국문화원

2007년 개원한 이래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에 힘써왔으며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음.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3. 서울예술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공립예술단체로서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출범하였음. 매년 3~4편의 창작공연 제작을 해오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통해 신작 개발 및 레퍼토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에도 힘쓰고 있음.

붙임 2 관련 주요 기사

ㅇ 한국 창작뮤지컬 6편, 중국을 홀렸다…中업계 높은 관심

기사입력 2018-10-10 16:58

예경센터·상하이문화광장 공동 주최 '2018 K-뮤지컬 로드쇼' 9~10일 개최

쇼케이스 후 비즈니스 매칭 통해 라이선스 판매 및 한중·합작 공연 협의

'2018 K-뮤지컬 로드쇼'가 지난 9일 중국 상하이(上海)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News1

(중국 상하이=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의 창작뮤지컬이 중국을 홀렸다.

지난 9일 중국 상하이(上海)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에서 열린 '2018 K-뮤지컬 로드쇼'에선 1100여 석을 가득 채운 중국 뮤지컬 관계자와 관객들이 한국의 창작 뮤지컬 6편의 시연회(쇼케이스)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번 시연은 원활한 무대 전환과 공연별 특성을 고려해 (사)하늘에의 '목 짧은 기린 지피'를 시작으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의 '인터뷰', 아도르따요의 '무한동력', 라이브의 '팬레터', 극단 오징어의 '식구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서울예술단의 '신과 함께-저승편' 등의 순서로 선보였다.

특히 중국 관객들은 두 할머니의 기묘한 동거를 다룬 극단 오징어의 '식구를 찾아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엔시아 국립 상해희극학원 교수는 "사진사가 잃어버린 아들의 행방을 찾는 지화자 할머니에게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냐'고 무심하게 묻는 장면 등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했다"며 "고령화는 중국에 닥친 현

실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 신화통신, 상하이방송SMG 등 중국 언론과 뮤지컬 관계자들은 이번에 선보인 창작뮤지컬 중에서 '무한동력'과 '신과 함께-저승편'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작 환경을 궁금해했다.

뮤지컬 무한동력 제작사 아도르따요 이지혜 대표는 "웹툰이 한국에서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TV드라마, 영화로도 많이 제작된다"고 소개했고, 유희성 서울예술단 이사장은 "인기 웹툰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예술만의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관객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18 K-뮤지컬 로드쇼' 사회를 맡은 중국 뮤지컬 배우 순도얼© News1

페이위엔홍 상하이문화광장극장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는 중국뮤지컬 관계자들의 관심에 대해 "중국 뮤지컬 시장은 상상력 넘치는 신화와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풍부한 소재가 많지만 이를 엮어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중국보다 제작환경이나 소재발굴 등에서 앞서 있다"고 비교했다.

페이위엔홍 부총경리는 "중국 뮤지컬 관계자들이나 언론들은 우수한 한국 창작 뮤지컬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연예술 시장을 성장시키고 싶은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인석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은 "한국 뮤지컬 시장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영국보다도 창작뮤지컬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 쉽다"며 "한국 창작 뮤지컬 시장의 이런 특성은 전 세계 공연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2018 K-뮤지컬 로드쇼'는 한국 창작뮤지컬 6편 쇼케이스를 비롯해 한-중 뮤지컬 포럼, 비즈니스 매칭,

전문가 네트워킹, 기자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 행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상하이문화광장이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서울예술단이 협력했다.

중국 뮤지컬 배우 순도얼이 사회를 맡은 '2018 K-뮤지컬 로드쇼'에선 라이선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엘리자벳' 등의 중국 공연을 기획한 페이위엔홍 중국 상하이문화광장극장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와 서동욱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이 창작뮤지컬 시연에 앞서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동욱 원장은 "한국 뮤지컬은 지난 10년에 걸쳐 비약적으로 성장해 대표적 공연예술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며 "K-뮤지컬 로드쇼를 통해 차세대 한류 콘텐츠인 한국의 창작 뮤지컬을 앞으로도 중국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하늘에의 '목 짧은 기린 지피' 시연 장면 © News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629916)

ㅇ 유희성 이사장 “아시아 시장…한국 뮤지컬 성장의 무한동력“

기사입력 2018-10-11 14:26

[인터뷰] '2018 K-뮤지컬 로드쇼'서 중국·대만 등과 공연 계약 논의중

유희성 서울예술단 이사장© News1

(중국 상하이=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유희성 서울예술단 이사장(59)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뮤지컬 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까울뿐더러 문화적 공감대와 시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할 '무한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성 이사장은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上海) 상하이문화광장에서 열린 '2018 K-뮤지컬 로드쇼'에서 기자를 만나 "서울예술단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이번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며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신과함께: 저승편'을 시연해 중국과 대만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중국 뮤지컬 시장을 대표하는 극장인 상하이문화광장의 경우, 서울예술단이 2020년에 방중 순회공연하는 방식으로 실무적인 부분까지 논의에 들어갔다"며 "대만의 공연 관계자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신과함께: 저승편'의 대만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호응에 관해 "동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뮤지컬 '신과함께: 저승편'의 배경인 지옥과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을 알고 있다"며 "또한 서울예술단의 앞선 뮤지컬 제작 시스템을 통해 세련되게 풀어낸 노래와 무대가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고 풀이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 창작뮤지컬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눈높이가 높아진 중국 뮤지컬 관객은 이제 취향에 맞는 작품만을 선별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뮤지컬이 조만간 한국 뮤지컬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해음악원 등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들의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서 놀란 적이 많다"며 "중국 배우나 기술진의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면 10년 이내에 중국과 한국의 창작시스템이 대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뮤지컬 '신과함께': 저승편 ' 2018.3.26/뉴스1 DB© News1 박정환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631792)

ㅇ 오미영 극단 오징어 대표 “중국 공항서 막막해 ’엉엉’ 울었죠“

기사입력 2018-10-11 14:56

[인터뷰] 'K-뮤지컬 로드쇼' 참가작 '식구를 찾아서' 시연

中 제작사들 계약 따내려 치열한 경쟁 벌여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공연장면 © News1

(중국 상하이=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두 할머니의 어색한 동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가 지난 9~10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上海)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에서 열린 '2018 K-뮤지컬 로드쇼'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이틀간 약 2200여 명이 관람한 '2018 K-뮤지컬 로드쇼'에선 '식구를 찾아서'를 비롯해 총 6편의 창작뮤지컬이 30분씩 주요 장면을 선보였다.

중국 뮤지컬 제작사 4개사는 시연회 이후 열린 1대1 네트워크 미팅에서 '식구를 찾아서'을 제작한 극단 오징어와 라이선스 및 투어 공연을 계약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미영 극단 오징어 대표는 "'2018 K-뮤지컬 로드쇼'에 참가하려고 중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막막해서 눈물을 엉엉 쏟아냈다"며 "최첨단 시설의 대극장 무대에서 중국관객들에게 '식구를 찾아서'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자고 다짐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11년에 초연한 '식구를 찾아서'는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한 작품이 아니다"라며 "지난 8년간 초심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립 지원을 받아가며 꾸준하게 공연을 올려 전국 12개 지역에서 2만여 명의 관객을 만났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혼자 살던 두 할머니가 밥을 함께 먹는 식구(食口)가 되어가는 이야기"라며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인들이 이 작품의 웃음과 눈물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조엔시아 국립 상해희극학원 교수는 이런 반응에 대해 "사진사가 잃어버린 아들의 행방을 찾는 지화자 할머니에게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냐'고 무심하게 묻는 장면 등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했다"며 "고령화는 중국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미영 극단 오징어 대표© News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631923)

ㅇ 뮤지컬 '팬레터', 2018 K-뮤지컬 로드쇼 쇼케이스 통해 중화권 진출 본격화

2018.10.22 14:17 입력 [위드인뉴스 김예림]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SAIC·상하이문화광장'에서 개최된 '2018 K-뮤지컬 로드쇼'에 선정된 창작 뮤지컬 <팬레터>가 쇼케이스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공연한 <팬레터>는 2,000석 대극장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중국 쇼케이스에는 김수용(김해진 역), 문태유(정세훈 역), 조지승(히카루 역), 정민(이윤 역), 손유동(김수남 역), 양승리(이태준 역), 권동호(김환태 역) 배우가 참여했다. 30분 간 진행된 하이라이트 시연은 '그녀의 탄생과 죽음', '그녀를 만나면', '투서', '거울' 등 의 넘버를 선보이며 현지 관객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이문화광장 대극장 객석 내부

쇼케이스 종료 후 뮤지컬 제작사, 극장, 미디어 그룹에서 오리지널 투어 및 라이선스 공연 문의가 쇄도했으며, SAIC·상하이문화광장과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논의를 주고받는 등 2019~2020년 중화권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제작사 라이브㈜ 강병원 대표는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가 '2016 K-뮤지컬 로드

쇼'에 참여하여 현재 중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중국 관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뮤지컬 <팬레터> 역시 현장 관객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아시아인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레퍼토리 뮤지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창작 뮤지컬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뮤지컬 <팬레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126&item=&no=16726)